2026 가을호
vol.37

성가롤로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팀 소식지

• 발행인 : 박명옥 • 편집인: 호스피스완화의료팀 • 전남 순천시 순광로 221 • Tel: 061)907-7530/7560 • Fax: 061)907-7562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안에 머물러라 (요한 15,9)

가을날

"나뭇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

아득히 멀리서 다정했던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지나온 시간들이 모두 아름다웠던 것은 아니지만,

그 시간들이 있어 오늘의 우리가 있음을 압니다.

바람이 불어와 옷깃을 여미게 할 때,

우리는 서로의 온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됩니다.

가을은 조용히 찾아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무 서둘러 갈 것 없다고,

함께 걸어온 길이 그대로 아름답다고."

- 신경림 -

"지나온 길을 다정히 돌아보며, 오늘 하루도 당신의 마음속에 따뜻한 햇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26년 6월 1일

통증캠페인

본 캠페인은 암성 통증과 마약성 진통제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매년 진행되는 캠페인의 일환으로, 암성 통증과 마약성 진통제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통증 조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마련되었다.

말기암환자들에게 가장 견디기 힘든 신체적 증상 중의 하나는 암성 통증으로, 통증 관리만 잘 되어도 환자들의 삶의 질이 현저하게 향상된다.

마약성 진통제에 대한 오해와 불안감을 해소하고, 적절한 치료를 통해 통증을 충분히 조절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여, 암성 통증은 참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관리해야 하는 증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기를 기대하였다.

캠페인은 본관 1층 로비와 2층 복도에서 진행되었으며, O/X 퀴즈, 리플릿 배포, 기념품 증정 등 다채로운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내원객과 보호자, 더 나아가 지역사회의 인식 개선에 도움을 주었다.















26년 8월 20일~21일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교육

이번 교육은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여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지원하고자 8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진행되었다.

완화의료가 임종 직전에 받는 서비스라는 오해를 바로잡고, 중증 질환 초기부터 환자의 통증과 증상 완화 및 사별 후 남은 가족 관리까지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는 복합 의료서비스임을 안내하였다.

또한 스스로 삶을 정리하고 마지막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입관 체험 활동과 유언서 작성, 완화의료 현장에서 환자와 가족을 돕는 봉사자들의 역할과 구체적인 참여 방법을 소개해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과 참여 기회를 넓혔다.

수강생들은 교육을 통해 느낀 점을 다음과 같이 나누어 주셨다.

- 교육에 잘 참석했다고 생각하며 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삶을 살겠다.
- 아내에게 보낼 유언서를 쓰면서 울컥했다. 잘해야겠다.
- 유언서 내용을 몇자나 쓸 수 있을까? 했는데 쓰다 보니 용지가 부족했다. 일상에서 유언서를 다시 써봐야겠다.
- 시각 장애로 배우자의 도움을 받으며 교육에 참석했는데 모든게 너무 감사하다.
- 가족들에게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다. (외국인으로서는 처음인 수강생)
- 입관 체험을 통해 관속까지 들어갔다 나왔는데 무엇을 못하겠는가 하며 용기가 생겼다.
- 관뚜껑에 못을 박을 때 울컥해지며 '예수그리도님 자비를 베푸소서'하고 기도 후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09월 22일

추석 맞이 송편빚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풍요로운 한가위의 의미를 되새기며 환자, 보호자들과 송편을 직접 만들어 보는 체험의 시간을 마련하였다.

오랜만에 송편을 빚으면서 가족들과의 옛추억을 떠올리고, 서로 담소도 나누며 잔치 분위기를 느껴보았다.

처음 송편을 만들어 보시는 분도 있고, 지금껏 명절 때마다 송편을 빚어서 송편 만들기의 고수인 분도 있어서 함께 송편을 빚으며 송편만들기 비법을 전수하기도 하셨다.

송편, 찐새우, 과일을 병실에 계신 환자분들과 보호자에게 배달해 드리니 병실에서만 지내다 보니 계절 바뀌는 것도 모르고 지내는데 이렇게 명절 음식을 먹으니 한가위를 실감한다고 하셨다.

몸은 병실에 있지만 마음만은 풍요로운 한가위 되셨기를 바란다.










10월 16일

호스피스의 날 기념 캠페인

2026년 호스피스의 날을 기념하여 화순전남대학교병원 권역호스피스센터와 광주, 전남, 제주 6권역 호스피스전문기관이 연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시청 주변에서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호스피스의 날은 매년 10월 둘째주 토요일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해서 기념하고 있다.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행사이며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중요성을 알리고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날이다.

호스피스·완화의료는 말기 환자의 통증 및 신체 증상을 완화하고, 환자와 가족의 심리 사회적, 영적 어려움을 돌보며 삶의 질을 높이는 의료서비스로, 환자가 존엄하고 평안하게 삶을 마무리 하도록 돕는다.

행사에서는 홍보 부스 운영, OX 퀴즈, 룰렛 퀴즈, 볼펜 꾸미기, 커피차 운영 등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친숙하고 올바르게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호스피스·완화의료팀장
표수진 베드로 수녀

호스피스완화의료팀장 표수진 베드로 수녀가 제14회 호스피스의 날을 맞아 10월 20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표 수녀는 호스피스 전문간호사 과정을 마치고 2013년 1월 부터 호스피스 병동에서 말기 환자와 가족 곁을 지켰다.

더불어 2016년 보조 인력 제도 도입과 입원형 호스피스 병상 증설에 힘을 보태 더 많은 말기 암 환자가 호스피스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환자가 품위 있게 임종을 맞고 남아 있는 가족이 상실을 이겨내도록 돕는 데에도 정성을 기울였다.

또한 표 수녀는 지역 주민 대상 호스피스 교육을 진행하고, 2016년부터는 완화의료 보조 인력 양성 교육 강사로 활동하며 현장에서 일할 인력을 길러왔다. 화순전남대병원, 광주보훈병원, 순천의료원 등 여러 기관에서도 강사로 활동하며 지역 전반의 호스피스 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한 바 있다.

표 수녀는 “환자와 사별 가족들 곁에서 늘 하던 일을 했을 뿐인데 큰 상을 받아 감사하다.”라며 “앞으로도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 가톨릭 호스피스협회 봉사자상 수상



봉사자
임정희 에스테르

호스피스병동에서 2015년 6월부터 지금까지 1770여 시간을 환우와 가족들을 섬겨오신 에스테르 봉사자께서 묵묵히 흘린 사랑의 땀방울이 값진 결실로 맺어져 한국가톨릭협회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

늘 변함없는 성실함과 따뜻한 가슴으로 환우와 가족분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마음의 위로가 되어 주셨던 에스테르 봉사자님!

환한 미소와 건강한 모습으로 오랫동안 함께 해 주기를 바랍니다.

주님!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영원한 빛을 그들에게
비추소서.

11월 위령성월을 맞아
먼저 가신
영혼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완화의료 도우미제도를 2016년 11월부터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1일 본인부담 간병비 5천원)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이용방법

말기진단(담당의사)

▼

호스피스 진료의뢰/방문

▼

호스피스팀과 상담

▼

이용동의서 작성

▼

호스피스 이용
입원형 호스피스(말기암인경우)

문의: 입원형 호스피스 061) 907-7560, 7530

병동 미사 및 사별가족 모임 안내

호스피스병동에서는 매달 두 번째 목요일 오후 2시에 입원환우와 가족, 세상을 떠난 환우와 사별가족을 위한 미사를 별관 **5층 호스피스병동 기도실**에서 봉헌합니다. 미사후 사별가족들과의 만남을 통해 상실의 슬픔을 서로 나누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하느님의 자녀가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2026년 하반기 대세자

6월	이 율리아나	9월	문 마리아
7월	정 마리아	10월	김 바오로
8월	문 안젤로		

후원회 소식

후원자

김귀순, 김경화, 김소월, 김은정, 김은희, 김은미, 김을순, 김장배, 김현자, 노순애, 박성지, 박성호, 박순자, 박정재, 박제형, 서영희, 손경표, 송소심, 송현자, 서순애, 신문자, 신효숙, 오미현, 오정현, 이구현, 이복덕, 이혜숙, 임정희, 장선화, 정상심, 정송희, 정정란, 정지영, 조소영, 조익순, 주선순, 주은아, 주은주, 황현숙, 허경자, 김민희

단체 및 기업후원

드림치과, 송도종합건설(주), JA건설
저전동 성당 빈첸시오회, 저전동 성당 대건회

물품 후원

김영순, 김은희, 배옥란, 박선심, 서혜정, 임정희, 조익순, 한덕순

호스피스완화의료 팀원들은 도움을 주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 중에 기억하며 매월 둘째 목요일에 감사미사를 봉헌 합니다

후원회 안내

호스피스완화의료 후원에 함께 하실 분들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립니다.

은행계좌: 700-107-426533 광주은행

예금주: (재)천주교까리따스수녀회(완화의료)